

# 은혜를 연주하다

제임스 김 James Kim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은 수많은 연주자들 가운데 자신의 커리어를 기독교 신앙 위에 확고하게 다져가는 연주자가 있다. 첼리스트 김정환, 세계무대에서 제임스 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006년 헝가리다비드포퍼국제첼로콩쿠르 1위라는 입상 성적 외에 2015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박성용 영재특별상으로 이미 국내외 무대에서 입지를 다졌다. 보스턴 심포니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등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카네기홀의 스티븐 토리엄, 웨일홀, 쟈켄홀, 보스턴심포니홀 등에서 굵직하고 다양한 연주 경력을 쌓았다. 2016년 가을 줄리아드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진학을 앞둔 20대 청년인 그에게 기독교 신앙인으로 연주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들어보았다.

인터뷰어 및 정리 김수진 (경주대 교수) 사진 Bonsook Ko, 김고운

**김수진(이하 김)** 인터뷰에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과 연주 활동에 대해,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음악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국 연주회 스케줄은 독주와 협연 두 가지를 병행하였지요. 아무래도 독주와 협연은 서로 다른 매력이 있을 텐데 첼로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관점에서 독주와 협연을 연주하는 것의 각각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임스 김(이하 James)** 독주회 혹은 솔로 리사이틀(이하 리사이틀)에서 연주를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자가 즐기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대 위의 솔리스트가 시종일관 음악 연주를 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리사이

틀은 가장 개인적인 연주회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리사이틀 무대에서 연주자가 꼭 하나하나를 연주해 나갈 때 청중은 연주자의 마음, 생각, 감정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주회의 긴 시간은 연주자가 자주 느낄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독주회에서 연주자를 이해해주는 피아노 반주자와 연주를 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반주자가 자신을 이해하는 솔리스트를 만나 함께 연주하는 일은 서로에게 가장 편하고 수월한 연주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제가 금호 아트홀에서 지난 8월 11일 리사이틀을 했을 때 반주자인 최인선 선생님과 경험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이와 다르게 오케스트라 협연자로 연주하는 것은 리사이틀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큰 중압감이 있죠. 왜냐하면 템포 등을 협연자가 분명하게 해석하고 연주해야 지휘자가 이를 이해하고 무대 위 오케스트라에게 전달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협연자는 무대 위 더 많





© Bonsaok Koo

은 연주자, 다시 말해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음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통 빠듯한 오케스트라 협연 리허설 진행 속에서 음악적 해석을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리사이틀 리허설에서 피아노 연주자와 생각을 주고받는 일과 비교해보면 훨씬 짧은 시간이 주어지고요.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협연 무대는 협연자가 리더가 되는 기회가 주어지기에 흥미로운 연주의 경험이 된다고 생각해요. 무대 위의 협연자는 교회의 목사님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주자든 목사님이든 이들은 모두 해석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연주자는 작곡가의 메시지를,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해석해내려고 하고 이것을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리더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것 같고요. 여기서 리더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협연은 이와 같은 것이죠. 제가 이번에 로열 필하모닉과 함께 협

연하게 될 차이코프스키의 곡은 현악기가 먼저 솔로로 연주를 시작하고 곧이어 호른이 이어갑니다. 제가 이 곡에서 연주를 시작하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의 연주 파트가 등장하고요. 각 악기의 솔로 파트를 이해하여 그 연주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또 이해하고 뒷받침하는 일은 저의 몫이죠.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뤄가고 이를 추구하는 일은 비단 협연 무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 다른 사회 영역에서든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곧 로열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시게 될 협연에 대해 소개의 말씀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James** 아직도 제가 로열필하모닉과 같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영국에 가본 적도 없거든요! 또한 마에스트로 알렉산더 쉘리

(Alexander Shelley)가 기꺼이 저와 연주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차이코프스키 곡을 연주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볼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지금까지의 삶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연주활동과 학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뿌리를 둔 디아스포라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주자의 입장에서 한국 청중을 대상으로 한 한국에서의 연주가 미국에서 하는 연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관객의 반응은 어떻게 다른지도 덧붙이실 수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James** 클래식 음악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청중은 큰 문화적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량과 기교, 그리고 신속한 결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엔터테인먼트, 고객 서비스 문화, 심지어는 올림픽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청중의 경우 연주자의 기량을 평가하고, 이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나아졌는지의 정도, 높은 점수, 그리고 감정적인 자극에서도 그 결과를 빨리 얻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에 미국의 청중은 더 오래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로움을 지닌 것 같아요. 미국은 이성과 개인성을 더 중요시하다보니 성장과정과 개인성을 존중해 줍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모든 문화권은 예술가로서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에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서로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추구하는 방향이 다 필요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문화권에서 연주하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이 둘의 방향을 모두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감사한 일이죠.

클래식 음악이 전국적인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연주회장장을 찾는 것

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연주자 입장에서 연주회장을 찾는 열정적인 젊은 세대를 보는 것보다 더 기쁘고 고무적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게 한국에서 연주하는 일이 정말 기쁘고 설레는 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 바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음악 활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것 같습니다. 칸타타를 비롯해 종교적 색채가 짙은 곡을 많이 작곡한, 그리고 오랜 기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던 바하라는 작곡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 자유롭게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바하의 음악에 국한된 이야기도 좋습니다.

**James** 바하는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이자, 많은 음악가와 기독교인에게 롤 모델이기도 하죠. 바하의 음악은 순수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이 묻어있습니다. 그 어떤 작곡가도 그들의 삶에서 바하가 일관되게 지켜왔던 완벽성을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음악이 아니라 “삶”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바하에게 음악은 자신의 직업이 아닌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음악 대부분은 그의 생전에 출판되지 못했어요. 300개가 넘는 칸타타를 작곡했고 그중 209개가 현존합니다. 바하에게 명성과 지위는 중요치 않았죠.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작곡을 했고 모든 작품의 끝에는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의 영광)라 남겨두었죠.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현대의 작곡가들이 수년이 걸려 칸타타, 오케스트라, 합창곡을 마무리 짓는데, 바하는 매 주 주일의 예배 사용을 위해 작곡했습니다. 바하는 다른 작품들을 작곡하면서, 오케스트라 리허설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혹은 다른 임무를 맡아가며 동시에

## COVER STORY

첼리스트 제임스 김을 만나다

12



© Bansook Koo

주일 예배를 위한 이러한 곡들을 계속해서 써갔습니다. 바하는 자신의 창의력과 혁신적인 생각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음악적 언어로 옮기는데 힘을 다했죠. 그의 마태수난곡, 요한수난곡, 그리고 칸타타는 성경 텍스트를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모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바하의 음악에서는 상징성들은 음 하나 하나에 가사나 상징성을 담아 의미를 부여하기에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 이런 바하의 음악이 교회에서 충분히 연주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김** 종교음악을 바라보는 현대의 교회에 대한 생각, 소감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현대의 기독교 교회 문화에서 종교음악이 연주되어지는 양상이나 종교음악을 대하는 현대의 교회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James** 가장 중요한 것은 곡을 쓴 마음을 이해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작곡가와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이 같은 뜻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다면 어떤 음악 장르든 뛰어넘는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기독교 음악, 기독교 찬양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더 열린 시각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바디워십이든 랩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사용될 수 있다 믿습니다. 물론 기준은 있겠죠. 아마도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찬양곡의 가사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며 성경의 말씀에 관한 진리를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전에 어떤 찬양곡을 들었는데 그 음악이나 가사 모두에서 한국 드라마 느낌이 들어 이게 정말 찬양곡일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문제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



(좌) 김수진 교수, (우) 제임스 김

자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곡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와 같고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지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드리는 사람 모두가 분명하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음악을 뛰어넘는, 믿기 어려운 미스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음악이 어떻게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능합니다.

**김** 음악가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역할과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James** 음악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어떤 사회에서건 교회에서건 간에 상관없이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연주를 하는 것은 무대에서의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 무대는 콘서트 홀, 교회, 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제 악기 없이도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만 한다고 확신합니다.

**김**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으신지요. 또 청중과 평단으로부터 어떤 연주자로 기억되고 평가받길 원하시는지요.

**James** 제 생각에 청중이 기억하는 연주자가 된다는 것은 설교처럼 음악을 듣는 순간 일시적 기쁨 뿐만 아니라 기억속에 남겨져 삶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COVER STORY

첼리스트 제임스 김을 만나다



로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일시 | 2016.09.10(토) 장소 | 롯데콘서트홀

합니다. 저는 제 학업을 통해, 그리고 작곡가와 그들의 작품에 관한 생각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전할 이야기 가 있는 음악가이자 해석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무언 가 진정으로 전할 이야기가 있을 때야말로 제가 새롭 고 가치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연주자가 되지 않 을까 꿈꿉니다.

**김** 앞으로의 연주 일정과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James** 저는 현재 뉴욕시에 거주 중입니다. 줄리 어드 음악원의 최고 연주자 과정에 진학해서 향후 2 년간 학교 지원으로 제 음악 경력을 더 쌓아갈 예정 입니다. 오는 9월 10일에는 지휘자 알렉산더 셸리와

로열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요, 협연 직후 9 월에 독일 크론베르크(Kronberg)아카데미에서 마스 터 클래스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7일 에는 카네기 켈홀에서 세종 솔로리스트와 함께 갈 라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2017년 3월 1일에는 WQXR이라는 뉴욕의 클래식 음악 방송국의 그린 스페이스에서 리사이틀을 하게 되었고, 4월 23일에는 엘리스 툴리 홀에서 링컨 센터의 첼리스트 콘서트에 참여할 예정이죠. 이 자리를 빌어 이 모든 연주들에 1715년산 마테오 고프릴러를 후원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신 삼성문화재단과 시카고 스트라디바리 소사이어 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11일 금호 아트홀 리사이틀 무대에 그는 20대 청 년만이 간직할 수 있을 법한 풋풋한 미소로 무대 위에 올랐 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 단조”를 첫 곡으로 시작해서 2부 끝 곡 쇼팽의 “첼로와 피 아노를 위한 화려한 폴로네이즈 C 장조 Op.3”까지 리사이 틀 후반으로 갈수록 음악 앞에서만큼은 단호하고 진지한 그 의 태도가 음악으로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미국 음악 비평 가 해리스 골드스미스가 몇 해 전 그의 연주를 보고 “한 젊 은 거장의 역사적인 등장”이라고 찬사를 전했던 것이 과언 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연주였다. 유독 최고, 최연소의 타 이틀을 쉰 연주자들이 많은 한국 음악계에서 그의 연주는 한 가지 단어를 덧붙이게 된다. 겸손함. 수차례의 앙콜 끝에 마지막 곡이 들리기 시작했다. “은혜 아니면”. 왜 그의 연주 가 겸손함 속에서 묻어 나왔는지 바로 수긍할 수 있었다. 모 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받을 은혜에 감사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그의 다짐이 첼 로 음 하나하나를 통해 진실되게 전해졌다. 첼로 연주가 무 대 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첼리스트 제임스 김. 단순히 첼리스트 제임스 김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발 딛 고 살아가는 예배자 첼리스트 제임스 김. 기독교 신앙 위에 확고하게 서 있는 그의 삶이 앞으로 또 어떻게 빛어질지 하 나님의 예비하심을 함께 기대해본다.